

- 信 바르게 믿고
- 解 바르게 알고
- 行 바르게 실천하고
- 證 바르게 깨닫자



金剛會報



金剛禪院 <http://www.geumgang.org> E-mail: keumgang-sw@hanmail.net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불기 2561년) [제132호]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발행인 : 헤거스님(안동수) /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11 삼우빌딩 405호(06329) / 편집 : 금강선원 편집부 / TEL : 445-8484 FAX : 445-8043 / 등록번호 : 서울라-10888



헤거스님 법문

수행과 공부에 온 마음을

를 해야지 그 밖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고통만 만들게 됩니다. 인간사 얼마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늙고, 조금 있으면 다 갑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길게 남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수행과 공부를 부지런히 하다가 입에서 여시아문 하다 죽고, 관세음보살 하다가 죽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비구니스님이 지장보살하다 죽었는데, 죽은 손에서 단주가 딸그락 딸그락 혼자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어 버렸는데 그런 정도라도 하고 가야지 스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생전 아무리 큰소리 쳐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승려는 마지막 가는 모습으로 평생 수행을 평가 받는 것입니다.

옛날 조사(祖師)들은 임종에 이르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노래했는데, 그것이 '임종계(臨終偈)'입니다. 임종계 속에는 죽음의 회한이나 두려움 같은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해탈의 자유가 있고, 자재(自在)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임종에 드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위해 몸으로써 활구(活句)를 보여준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남악현대(南嶽玄奘)선사는 대중에서 수행하기보다는 홀로 산 속에서 거처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평생 고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평소 고고한 생활에 제자 한사람도 없이 홀로 수행하다가 열반하셨습니다. 열반에 들기 전날, 한 수행자를 불러 그가 머무는 토굴 앞에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게 한 뒤 법의(法衣)를 입고 올라 앉아서 입적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시대 단하천연(丹霞天然 739-824)선사는 목욕을 한 후 새 옷을 갈아입고, 샷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은 후 몇 발자욱을 걷다가 입적하였으며, 불수행인(佛手行因)선사는 유년에 출가하여 토굴에서 홀로 정진하였으며 제자 또한 두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항상 만물과 벗 삼고 있어 항상 스님 곁에는 사슴과 다른 짐승들이 따라 다녔다고 합니다. 이 스님은 대중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나서는 사람처럼 두어 걸음 걷다가 우뚝 서서 입적하였는데, 스님이 열반 후 바위 곁에 있던 소나무가 같은 날 이유 없이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당나라 때 등은봉(鄧隱峰)선사는 임종을 장난치듯 연출한 대표적 선사로서, 앉아서 혹은 서서 돌아가신 스님들이 누구냐고 물은 후 물구나무를 서서 입적한 선사입니다. 이런 죽음 앞에 슬픔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도 하나의 미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주보화(鎭州普化 : ?-861)선사는 어느 날

대중들에게 옷 한 벌을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보화스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대중들은 새 옷을 마련하여 주었지만 그때마다 보화스님은 이 옷은 내가 입고 갈 옷이 아니라고 받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임제선사는 관을 준비토록 했고 보화를 불러 "자네가 찾고 있던 옷 한 벌을 마련했다"며 그에게 주었습니다. 보화는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임제스님이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옷을 주었다며 관을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으며, 즉 뱀이 껍질을 벗듯이 몸을 훌쩍 벗는 전신탈거(全身脫去)의 이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옛 스님들의 마지막 모습은 평생 수행과 공부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화두를 계속 마음에 두고 산다면 현실에서 허덕이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허덕이다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수행과 공부에 마음을 쓰고 허덕이지 않고 싶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장자 달생편(達生篇)에 나오는 싸움닭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성자(紀子)가 주나라 선왕(宣王)을 위해 싸움닭을 길렀습니다. 10일이 지나 왕이 물었습니다. "싸움닭으로 만들어졌는가?" 기성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은 공연히 지 힘만 뽐내며 기운만 믿고 있습니다." 다시 10일 지나 왕이 싸움닭이 어찌 되었는지 묻자, "아직도 안됐습니다. 여전히 다른 닭이 움직이는 소리나 그림자를 보면 싸우려고 합니다." 또 다시 10일이 지나 왕이 물으니,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다른 닭을 노려보며, 속의 기운을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일 후에 왕이 다시 묻자, 기성자가 답하였습니다. "이제는 거의 싸움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다른 닭들이 울더라도 마음이 안정되어 변화가 없고, 바라보면 마치 나무로 만든 닭과 같습니다. 싸움닭 본래의 덕이 온전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른 닭들이 감히 탐미지 못하고 도리어 달아나 버립니다. 천하에 적수가 없는 싸움닭이 되었습니다."

이 예화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지혜와 기술보다는 덕을 갖추어 싸움에서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정유년에는 수행과 공부에 온 마음을 기울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동할 수 있고, 확실한 자기 운명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원을 세워 꼭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헤거 큰스님 동지법문 중에서

동지(冬至)가 지나면 사실상 새해로 바뀌는 것입니다. 동지는 24절기의 하나로 일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은 가장 긴 날로 음의 기운이 극에 이르지만 이 날을 기점으로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여 양의 기운이 싹트는 사실상 새해를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싹이 돋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를 의미합니다. 특히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는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도래할 빛의 출현을 알리고, 만물과 영혼을 깨우는 희망과 개벽을 의미하지만 닭은 본래 싸움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싸움 잘하는 닭을 키워 닭끼리 싸움을 붙이기도 하는데, 싸움닭이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싸움을 했다 하면 둘 다 상처만 입습니다. 그런데, 2017년 정유년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닭들이 조류독감으로 죽어갔고, 대통령 이하 정치인들은 서로의 권력다툼으로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작년부터 올해를 이어가며 새해를 싸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자리 그것도 본래 자기 자리가 아니고, 재벌도 재벌 자리 본래 자기 자리가 아니고, 그 무엇도 본래 자기 자리가 아닙니다. 본래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뚱이를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서 고통 받고, 또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서 집착하다 보니까 온갖 파탄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착에서 벗어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그 순간부터 눈이 바로 뜨이게 되어 모든 것이 바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한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집착 말고도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수행과 공부를 취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것은 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돈에 취해도 탈이 생기고, 명예도 취하면 탈이 생깁니다. 요즘은 종교인들도 수행과 공부를 멀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원히 세상에 남는 것은 수행과 공부 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정말로 모자란 것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계속 수행과 공부

동지법회 봉행



1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동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동지는 24절기의 하나로 일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은 가장 긴 날로 음의 기운이 극에 이르지만 이 날을 기점으로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여 양의 기운이 싹트는 사실상 새해

를 알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짓날을 작은 설이라고 하여 팔죽을 쑤어 나누어 먹는 세시풍속이 있었습니다. 이날 동지를 맞아 지난 한 해를 잘 보낸 것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안녕을 발원하며 기도를 한 후 큰스님 법문이 이어졌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법문에서 “동지(冬至)가 지나면 사실상 새해로 바뀌는 거예요. 신년입니다. 올해는 수행과 공부에 온 마음을 기울여 정진하는 한 해가 되어야 개인이나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불자님들은 동지팔죽도 드시고, 큰스님께서 친히 쓰신 원각경 새해 달력도 받으셨습니다.

성도재일 철야정진



1월 4일(수) 성도재일을 맞이하여 철야정진이 있었습니다. 철야정진은 오후 10시 큰스님

법문을 시작으로 참선 1시간, 금강경 독송 1시간, 염불 1시간, 예불 순으로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큰스님께서 법문에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날입니다. 이런 날 나도 내 몸과 내 마음을 다 바쳐 성불하기 위해 본인이 잘할수 있는 수행, 즉 참선이면 참선, 염불이면 염불, 독송이면 독송, 사경이면 사경으로 전념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IPC 참선 철야정진

IPC회원들은 1월 20일(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불이실에서 참선 철야정진을 하였습니다. IPC(Inner peace community: 내면의 평화 공동체)는 금강참선지도자과정 졸업생들의 모임입니다. 2017년 IPC 운영진(회장: 백미현)이 대폭 개편되었으며, 올해에는 수행을 중점적으로 정진할 것을 회원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모

든 회원들이 꾸준히 수행하고는 있지만, 도반들이 모여 수행을 하는 것이 자신의 수행에 대한 각오도 새롭게 하고, 서로의 기운을 받아 좋은 정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매달 1회 3번째 금요일에 철야정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달 철야정진 일은 2월 17일(금)입니다.

제1회 금강경 합송시연회



만일수행결사회에서는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여 생활화하는 평소 큰스님의 당부를 실천하고, 보살 사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발심으로 올해 정유년은 금강경을 외우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천 방안으로 금강경 합송시연회를 매월 1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1차 시연회가 1월 18일(수) 오후 1시 큰 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금강경 제1분 법회인유분과 제2분 선현기청분을 합송하였습니다. 총 13팀에 1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시연회에서는 선등, 만수결, 도반 등 다양한 팀 구성과 인원으로 다양각색의 면모를 보여주며 대중들의 큰 박수와 응원 속에서 팀별 합송을 진행했습니다. 큰 스님의 격려사와 심사로 시작한 합송시연은 첫 팀부터 마지막 팀까지 큰스님께서 면밀하게 관전하시고 상세한 평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큰스님께서 심사평에서 “모든 팀이 다 잘하였지만, 어떤 팀은 호흡이 안맞고, 어떤 팀은 화음이 잘 안맞는 경우가 있었다. 합송이란 무엇보다 팀별 간 호흡과 화음이 중요한 것이다. 팀원끼리 한번은 천천히 합송해 보고, 또 한 번은 빠른 속도로 합송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큰스님의 선창에 맞추어 모든 참석자와 관람자들이 함께 금강경 합송을 하는 등 큰스님께서 합송하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합송대회 최우수상과 상금을 수여 받은 팀은 용인수지 선등 팀으로 그 첫 번째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상으로 칭찬하는 것은 우열을 가리는 의미보다는 그저 근소한 차등을 두어 더욱 발심케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첫 시연회가 성황리에 마쳐진 것에 힘입어 앞으로 매월 회가 거듭될수록 동참자들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며 참가 신청은 언제든지 수시로 받습니다. 금강선원신도 모두가 금강경으로 하나 되는 그 날까지 금강경합송시연회는 계속됩니다.

- 2차 금강경합송시연회 일정: 2월 22일 (넷째 수요일)
 - 외출 분 : 대승정종분 제3, 모행무주분 제4
- (단 처음 참석하는 팀은 1분과 2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신년 7일 합동 천도재 봉행

2017년 정유년 신년 7일 합동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업장소멸과 조상천도를 위한 진정한 효를 실천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많은 불자님들 수희 동참하시어 기도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 ❖ 입 재 : 2017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 ❖ 회 향 : 2017년 2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
- ❖ 동 참 금 : 20만원 이상
- ❖ 계 좌 : 신한은행 100-025-513955 금강선원

미리보는 다음 일정

❖ 2017년 입춘기도 봉행

2월 4일(토) 오전 10시 30분
오는 2월 4일(토) 오전 10시 30분 큰법당에서 입춘기도를 봉행합니다. 입춘은 24절기 중 첫 번째 맞는 절기로 새싹이 움트는 시기이며, 역법 상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입춘을 맞이하여 금강선원에서는 다 같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가족의 안녕과 나라의 평안을 위해 발원하고 기도합니다. 정유년 입춘기도에 다 같이 동참하시어 새로운 한 해의 원력과 마음가짐을 다지는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큰스님께서 한 해를 살아가는데 지침이 될 글귀가 담긴 입춘지를 직접 쓰셔서 나누어 드립니다. 기도비는 3만원입니다.

❖ 7일 합동천도제 봉행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는 2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합동천도제를 봉행합니다. 합동천도제는 7일간 진행되며, 선망조상이나 인연 있는 영가들이 괴로움과 무명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기를 발원하며 정성을 다해 일념으로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2월 14일 지장재일에 입재를 시작으로 7일간 기도정진이 있으며 2월 20일(월) 관음재일에 회향합니다. 천도재란 돌아가신 영가가 부처님 법을 듣고 생전의 죄업을 참회하고 법을 깨달아 자신들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의식입니다. 소중한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시어 기도로써 자신을 극복하고 참회하여 업장소멸과 조상천도의 원을 성취하고, 그 원력의 힘으로 2017년 한 해에는 가정과 나라가 장애없이 모두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비는 20만원입니다.

❖ 제12기 청소년 기초참선반 개강

2월 25일(토) 오후 4시 큰법당에서 청소년 기초참선반을 개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2~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많은 학습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긴장을 이완할 수 있는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전두엽 훈련을 중심으로 지구력, 집중력, 자기조절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두엽은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전두엽을 활성화 시키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견거나, 음식을 씹거나, 명상을 할 때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이고, 청소년 시기에 길러야 할 인성과 가치관 확립 및 학업성취도를 높여주는 데 있습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수강료는 2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8면 참조)
○청소년 기초참선 학부모 설명
▪ 일시 : 2월 4일(토) 오후 1시 30분
▪ 장소 : 금강선원 큰법당회

❖ 제30기 기초참선반 개강

2월 27일(월) 오후 2시 30분 큰법당에서 제30기 기초참선반이 개강됩니다. 기초참선반에서는 참선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좌선을 바탕으로 참선이론에서부터 실천까지 참선수행의 기초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교육은 큰스님의 “좌선의” 강의, 참선, 시선 집중하는 법, 순간순간 떠오르는 번뇌 다스리는 법 등을 혜거스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특히 매회 수업이 끝난 후에는 수행일지를 작성함으로써 변화되어 가는 자신을 스스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에서도 계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게 지도하고, 올바른 참선수행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동안 이어지며, 14주간 진행됩니다. 수강료는 2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8면 참조)

❖ 제43기 선하불교대학 개강

3월 6일(월) 10시 30분 개강
3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큰법당에서 제43기 선하불교대학이 개강됩니다. 불교대학은 불교의 기초교리와 불자의 기본 의전을 배우는 불교 입문과정입니다. 강의는 약 3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며, 혜거 큰스님께서 기초교리에서부터 부처님의 생애, 참선법과 기도법, 사찰예절 등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전반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불교에 처음 입문한 초발심 불자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수강료는 1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면 참조)

❖ 능엄경요품(楞嚴經要品) 개강

매주 수요일 진행되어 오던 ‘육조단경(六祖壇經)’이 종강을 하고, 오는 2월 22일부터 ‘능엄경요품’이 개강됩니다. ‘능엄경(楞嚴經)’은 옛부터 이 경의 가르침을 기탁염(棄濁染), 발묘명(發妙明)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혼탁하고 물들은 마음을 버리고[棄濁染]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의 지혜를 발하는 것[發妙明]이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에서는 아난과 부처님의 긴 문답을 통해 진실과 허망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통찰력의 구비와 엄정한 계율의 실천, 그리고 모든 장애를 물리칠 수 있는 다라니의 지송과 여러 성인의 지위를 바르게 알



고, 더 나아가 수행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마구니의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능엄경’은 고려 중기 선종의 부활과 간화선의 수용이라는 새로운 사상적 변화과정에서 폭넓은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능엄경요품(楞嚴經要品)’ 강의에 많이 동참하시어 공부가 한 단계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회비는 없으며, 교재비는 1만 5천원입니다.

❖ 제5기 금강참선지도자과정 개강

본 선원에서는 3월 3일(금) 오후 1시 30분 제5기 금강 참선지도자 과정을 개강합니다. 본 연수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에서 주관하는 명상전문지도사 자격 수여 단체기관 과정입니다. 이번 5기 과정은 그동안 7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지난 지도자 과정을 대폭 수정하여 2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대상은 금강선원 기초참선 수료생과 한국명상지도자협회에서 주관하는 명상아카데미 초급, 전문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며, 2급, 1급, 전문, 지도자과정 4등급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지도자 과정에서는 이론과 실참을 통하여 참선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충분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번 3월 3일(금)에는 4개의 과정 중 2급 과정을 개설합니다. 2급 과정은 4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8면 참조)

❖ 21일 소원성취기도

본 선원에서는 매달 초 21일 소원성취기도가 6층 법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21일 동안 각 불자들이 각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원을 세워 지성으로 기도 정진하는 기간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한 몰입의 과정이며, 원이 성취되도록 정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2월 달에는 신년기도와 7일 천도제 기도로 인하여 21일 기도가 없습니다. 3월에는 3월 2일(목) 오전 9시 30분에 입재가 있습니다.

참선반소식

동안거해제

2월 11일(토) 오전 10시 30분 큰법당에서는 정월 대보름 기도와 동시에 동안거해제를 봉행합니다.

참선반 집중수행

2월 6일(월) ~ 2월 7일(화)
오전 10시 ~ 오후 4시

2월 IPC 참선 철야정진

2월 17일(금) 오후 6시 ~ 익일 오전 4시

송구영신법회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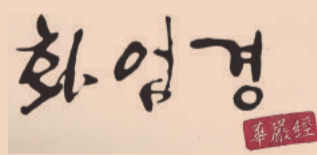


2016년 12월 31일(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법회가 탄허기념박물관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식전 행사로 무형문화재 공연 팀의 우리 악기 연주와 판소리, 민요모음, 각설이 타령 등이 흥과 멋을 전해주고, 가가합창단의 음성공양 또한 감동을 더해주며 병신년과의 아쉬운 이별을 아름답게 장엄해 주었습니다.

1부 송년법회에서는 큰스님의 집전으로 참회계를 대중이 함께 염불하며 송년의식을 가졌고, 바로 이어 오후 11시에는 2부 영신법회가 이어졌습니다. 큰스님께서서는 타종으로 정유년 새해를 열어 주셨습니다. 이어 예불과 사성례, 축원, 통알 의식, 그리고 세배의 순서로 법회는 진행되었고 큰스님께서 내려주신 세뱃돈을 받는 모든 신도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잠시 천진불이 되었습니다. 이어 큰스님께서서는 특별 법문에서 “정유년을 어떻게 사시겠는가?”라고 일갈하시며 사자후를 하셨습니다.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공통의 목표가 지금은

절실히 필요하다.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킨다.’라는 굳센 신념으로 개개인마다 각 단체마다 이 원력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분열과 갈등은 해소되고 흩어진 국민들의 마음은 어느새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또 포록 정유년에는 큰 그림을 가지고 큰 원을 세워서 이를 이를 때까지 열심히 사생결단하는 기도로 살아 보도록 합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스님의 간절하고도 간곡한 새해 메시지를 끝으로 법회를 회향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회는 지난해에 대한 참회로 마무리하면서 곳곳에 미완성으로 얼룩진 병신년은 마음에서 내려놓고, 새해의 꿈과 희망을 타종으로 온 법계에 알리면서 정유년에는 만물의 안녕과 깨달음을 소망하는 간절하고도 엄숙한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유년에는 큰 원을 품으시고, 그 원을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BTN법문 금강선원 선원장 헤거스님

첫방송 : 11월 15일 14시 50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50분(본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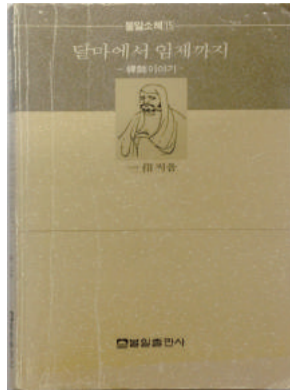
토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전 07시 30분(재방송)

박물관 소식

- 1월 10일 한국박물관 협회 신년 교례회(오후2시, 국립민속박물관)
- **연중진행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매·마·수)
- **한국박물관협회 신년 교례회 참석**
2017년 1월 10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2017년 박물관인·미술관인 신년교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회의장님의 축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장관의 인사말이 진행이 이어 2016년에 훌륭한 성과를 나타낸 박물관과 학예사들에 대한 표창과 시상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2017년 박물관의 사업계획들과, 성공을 위해 노력하자는 건배제로 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제10기 박물관 문화시민 대학생 봉사단 모집**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최/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제10기 한국 대학생 박물관, 미술관 문화시민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봉사기간은 2017년1월~2월이며 신청 자격은 대학생 및 휴학생입니다.
50시간이상의 봉사시간을 이수하시면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증식을 제공하며 박물관, 미술관 관련 탐방도 계획 중입니다.
지원은 (www.museum.or.kr) 로 하시면 됩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선(禪)이란 무엇인가? ①



달마에서 임제까지
- 선사(禪師)이야기 -

해탈(解脫)의 생명관(生命觀)

어느 날 복작이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눈에 뜨인 '까르마는 부메랑처럼 되돌아 온다'라는 문구를 읽은 적이 있다. 이 말은 어느 불교학자나 고승의 법어가 아니라 불교적 금욕(禁慾)이나 통찰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한 외국 여가수의 생활신조였다. 그러나 어쨌든 그녀는 삶을 이해하고 있다. 누구의 삶이든 삶의 모든 순간들은 언제나 까르마의 울가미를 남기고 사라진다. 우리가 삶을 당혹해하는 이유는 그 까르마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뒤떨어져 있더라도 까르마를 낳는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고 깨달음의 행법(行法)을 일상화(日常化)시킬 필요가 있다.

선(禪)은 먼저 치열한 인간응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선은 마음의 깨달음을 강조한다. 마음…… 깨달음…… 마음의 사상에, 깨달음에도 얼굴은 없다. 그렇다. 인간의 운명을 완성한 모든 영원함에는 얼굴이 없다. 즉 무색무미(無色無味)인 것이다. 우리는 단지 사상(思想)의 옷을 입히거나 언어의 화장을 통해서 그 영원함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임제는 말했다. “마음의 근원적인 법칙은 형상이 없으나 순수하고 유연하게 온누리를

관통한다(心法無形, 通貫十方)”라고, 누구나 처음에는 얼굴이 없는 영원함 앞에서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상의 옷, 언어의 화장에만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행법(行法)에 대한 반성이 깊어지면 새로운 차원의 인간탐구에 필요한 방법을 체득하게 된다. 그리고 순수하고 유연한 힘으로 뒤떨린 현실을 극복하고 삶의 중심부로 이동해 갈 것이다.

선불교(禪佛敎)에서 심법(心法)이란 심리학의 용어가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9년의 침묵 속에 입주(入住)해 있던 달마를 찾아온 혜가는 호소한다. “제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스승께서 보살과 주시기를.” 그러나 달마는 말한다. “그대의 아픈 마음을 내게 주게.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주리라.” 결국 혜가는 “마음을 찾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달마는 가르친다. “찾아진다면 어찌 그것이 그대의 마음이었는가? 나는 벌써 그대의 마음에 평화(安心)를 주었느니라!”

달마와 혜가의 문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정(限定)을 발견한다. 즉 마음의 평화란, 안심(安心)이란 일부터 마음의 평화를 구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성(眞性)에 대한 확신,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조차도 언젠가는 소멸되고 말 객진위망(客塵僞妄)이라는 사실의 투철한 자각에서 확인된다는 것이다. 문제를 만들어낸 우리 자신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선의 수행에 필요한 대전제인 것이다.

황벽(黃檗)은 설한다. “도(道)를 추구하는 자가 마음의 근원적인 법칙(心法)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이 마음을 떠나서 허깨비 마음을 만들고 외부에서 붓다를 찾고자 하며, 정신적인 수행에 있어서도 객진번뇌(客塵煩惱)의 노예가 되고 만다. 그는 길을 잃은 것이다. 진리의 길이 아니다.” 그렇다.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압도적인 신뢰이다.

그래서 선은 철저히 주체적인 자기형성의 도이며, 인간의 삶 그 저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존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붓다의 길을 가고 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항상 새로운 차원의 자기발견(自己發見)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갖는다고 인정한다. 물론 이러한 자기발견, 자기초월에는 기존의 오염된 싸이클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자유와 통찰이 중대한 역할을 한다. 선은 이에 필요한 자기발견, 정신의 자유에 대해서 가르친다. 불교는 해탈의 생명관이다. 선불교는 초기불교 이래 계속되어 온 불교의 인간탐구가 결실된 해탈의 생명관을 일상화시키고 있다. 깨달음에 도달한 선의 달인(達人)들은 대승불교사상의 장엄한 회향(回向)과 시여(施與)의 윤리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실현해 갔다. 그와 같은 행동의 근저에는 인간을 심법(心法)의 광대한 우주로 이끄는 해탈의 생명관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선(禪)의 마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선불교(禪佛敎)가 지향하는 심법(心法)의 깨달음을 끝내 도달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 또는 혼란스러운 현실 저편에 위치하는 완성된 미학(美學), 혹은 신비주의(神秘主義)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유념해 두어야만 한다. 선(禪)은 인간응시의 도(道), 해탈의 생명관을 구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자기탐구의 행법(行法)이라는 것을, 선은 주체적인 자기응시를 통해 세계와 인간의 삶을 조명하는 달음의 운동이다. 선은 신화가 아니다. 선의 행법에서 삶의 심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바르게 봄', '정견(正見)'이며 선의 대전제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바르고 깊이 투시한다는 것은 우리의 까르마와 번뇌의 뿌리인 물혹(物感)과 인혹(人感)을 초극하는 기본행법이다.

우리는 현상을 주시하고 생존에 필요한 다

양한 선택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욕망과 에고이즘, 불안과 갖가지 공포에 의해서 습관 지워진 판단을 내리고 있을 뿐이다. 진실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눈과 마음의 관계에서 이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眼根)은 언제나 자신의 욕망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기 중심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착오와 무지를 수반한다.

이렇듯 불안정한 감각에 의존하는 우리의 오염된 지각(知覺)은 삶의 여러 현상에 대한 부정확하고 오염된 데이터를 받아들임으로써 고통과 번민을 낳는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고통에 집착함으로써 고통을 즐기고 있는 병적인 상태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자기초월과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이겨내야 하며 삶의 진상을 투명하게 꿰뚫어 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선불교는 본질적으로 자기탐구의 행법이다. 그리고 이 자기탐구의 행법은 실천적이다. 선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대 자신의 붓다를 스스로 증득하라”는 내심자증(內心自證)의 가르침이다. 어떠한 종교적 권위나 사변적인 지식에 구속되지 않고 해탈을 향한 인간의 의지를 끝까지 밀고나간 선(禪)은 해탈의 불교적 행법을 가장 섬세하게 현장화(現場化)시킨 모범적인 사례인 것이다. 특히 선불교는 상품주의 문명의 비인간화 현상, 인간의 주체적인 자기형성의 의지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는 비인간화 현상을 극복하고, 전인격적(全人格的)인 지혜를 수련하는 인류의 대표적인 영지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자기회복의 행법, 선은 영화·미술·문학·음악·과학·철학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선은 이제 불교의 사유품(私有意品)만은 아닌 것이다.

글 / 일지(一指)



제43기 선하불교대학 모집



불교 입문과정으로 불교에 관심을 갖고 처음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개 강 : 2017년 3월 06일(월) ~ 5월 29일(월) 총 3개월과정
- 교육시간 : 매주 (월) 오전 10시 30분 ~ 오후 2시

- 교육내용 : 불교 기초교리 및 의전
- 수강비 : 10만원 (문의 02-445-8484)

불교설화이야기

목탁의 유래에 얽힌 설화



수행하는 사람에게 좋은 교훈 물속 생물들의 구원을 위해

옛날 어느 절에 덕 높은 스님이 몇 사람의 제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고 제멋대로 생활하며, 계율에 어긋난 속된 생활을 일삼다가 그만 몹쓸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뒤에는 물고기 몸을 받아 태어났는데 등 위에 큰 나무가 솟아나서 여간 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스승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가는데 등 위에 커다란 나무가 달린 고기가 뱃전에 머리를 들이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이 깊은 선정(禪定)에 잠겨 고기의 전생을 살펴보니, 이

는 바로 병들어 일찍 죽은 자기 제자가 방탕한 생활의 과보(果報)로 고통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가 그전 죄를 참회하고 등에 난 나무를 없애주기를 애걸하므로 스승이 이를 알고 가엾은 생각이 들어 수륙천도제(水陸薦度齋)를 베풀어 고기의 몸을 벗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스승의 꿈에 제자가 나타나서 스승의 큰 은혜를 감사하며, “저의 등에 난 나무를 베어 저와 같이 생긴 물고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무막대로 쳐 주십시오. 그 소리는 수행자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고, 물고기들에게는 해탈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스승은 그 부탁에 따라 이 나무로 물고기 모양을 판 목어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경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 등에 자라난 나무를 베어 고기 모양의 목어(木魚)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중국 및 우리나라 선종(禪宗)에서 사찰 규범의 지침서로 삼았던 ‘백장청규(百丈淸規)’에 의하면, 물고기는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으므로 수행자로 하여금 자지 않고 도를 닦으라는 뜻으로 목어를 만들었다고 하였으며, 그것을 두드리며 수행자의 잠을 쫓고 혼침(昏沈: 어둡고 혼미한 정신상태)을 경책했다고 합니다.

목탁(木鐺)은 이 목어가 변형된 것으로 불교의 여러 의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법구입니다. 예불이나 독경을 할 때 혹은 때를 알릴 때에도 사용하며, 그 밖의 여러 행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목탁은 목어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그 형태 또한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파서 물고기의 꼬리 부분을 둥글 넓적하게 표현하고, 방울 모양으로 된 꼬리 같은 손잡이를 제 몸에 달아서 만든 것입니다. 사실적인 조각이나 색칠보다는 앞부분의 긴 입과 입 옆의 아가미 형상을 본뜬 둥근 모양으로 고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둥근 목탁을 손

에 들고 치는 것과 달리 중국 등지에서는 물고기 모양으로 된 긴 것을 받침대에 올려놓고 사용하며 어탁(魚鐺)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큰 사찰에 가보면 대개 종각이 있고, 이 종각에는 네 가지 법구(法具)가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쇠로 된 범종(梵鐘)과 가죽으로 만든 커다란 법고(法鼓) 구름 모양의 운판(雲板) 그리고 고기 모양의 목어(木魚)가 그것인데, 이 네 가지를 사물(四物)이라고 합니다.

범종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땅 밑 중생들의 해탈을 기원하며 울리고, 큰 북은 네 발 가진 짐승의 무리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치는 것이며, 목어는 물속 생물들의 구원을 위해 두드리는 것이며, 운판은 날아다니는 날 짐승과 온갖 곤충들의 안락을 바라며 소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물의 울림 속에는 ‘원컨대 이 소리 온누리에 두루 퍼져 고통받는 온갖 중생 다함께 해탈케 하여지이다’ 하는 염원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곧 뜻 중생의 행복과 해탈을 기원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자비의 소리인 것입니다.



물 같은 사람

나에게는 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그녀를 소개할 일이 있었는데 오랜 세월 보아 온 그녀를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찾다가 문득 떠오른 단어가 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고등학교 시절에도 나는 그녀에게 물이라고 심술궂게 말했었지요. 그녀의 고향은 수도권에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외곽이었는데 공부 좀 하던 그녀가 도청이 있는 시지역의 여고로 유학을 오면서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특기는 ‘웃기’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래도 웃고, 누가 뭐래도 그저 큰 입을 벌려가며 웃기만 했지요. 웬만해서는 그녀가 화내는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강하게 내비쳤던 일도 내 기억엔 별로 없습니다. 바보이거나 가식일 수도 있다고 날을 세웠던 내게 그녀가 또 웃으며 말했었지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난 진짜 바보인가 봐.’ 나는 답답한 마음에 땀물 이라고 편지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순하다 순한 그녀가 친구들과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음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앞 그녀의 자취방을 들락거렸습니다. 다섯 명이 무릎을 나란히 하고 앉으면 딱 찻던 그녀의 자취방에서 밤늦도록 소곤거렸던 이야기들, 미래에 대한 기대와 걱정으로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위로의 말들, 우리 우정 변치 말자고 맹세하던 약속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의 작은 방에는 항상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 같은 간식거리가 끊이지 않았고 방 한 귀퉁이에는 불룩하게 배를 내민 쌀자루가 있었습니다. 한창 식욕이 왕성한 딸과 친구들을 위하여 그녀의 어머니가 쌀자루며 간식 바구니가 비워질 세라 부지런히 채워두셨던 것이지요. 손

수 농사 지으신 먹거리들을 머리에 이고 버스를 두 번 씩 갈아타면서 일주일마다 오시던 어머니가 당부하셨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자라지 않게 실컷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그녀처럼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해 전 그녀의 어머니를 뵈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마디는 몽푹해졌지만 어머니는 눈꼬리와 입꼬리가 가까워지도록 크게 크게 웃으며 저를 반기셨습니다. 텃밭에서 거둔 채소로 푸짐한 밥상을 내밀며, “네가 좋아 하는 푸성귀 많이 먹거라.” 하시며 또 웃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와 나에게 무심한 듯 말씀하시더군요. “맘 편히 사는 게 최고다. 사람들이랑 부딪치지 말고, 그저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다 되는 것이다.”

그녀의 선량함과 넉넉한 웃음은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어느 곳에 있더라도, 누구와 만나더라도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면 나쁜 일은 없을 거라고 가르치신 덕에 그녀는 그렇게 순하게 웃을 수 있었나 봅니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보며 나는 다시 물을 생각했습니다. 세모 그릇에 담기면 세모가 되고, 네모 그릇에 담기면 다시 네모의 모습이 되는 물. 억지 부리지 않고 주변에 부드럽게 동화되지만 그렇다고 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땀물 같은 그녀가 30년 넘도록 내 곁에서 보여준 말과 행동이 그저 땀물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물 같은 내 친구를 생각하다가, 법구경에 전하는 부처님 말씀이 떠올라 옮겨봅니다.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지혜로운 도반이 될 친구를 만났거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마음을 놓고 기꺼이 함께 가라.’

글/전현서(국제포교사)

경전법회 안내

수요경전법회 육조단경 매주(수)
금요경전법회 화엄경 매주(금)
일요가족법회 고문진보 매주(일)
▶모든 경전법회는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문화특강 안내

서예반 매주(월) 오후 2시
합창반 매주(금) 오후 1시

제사 안내

49재 / 초재 막재 / 막재
기제사, 명절합동차례(설날, 추석), 천도재

선원일정

2/ 1(수) 신년3일기도회향 10시 30분
2/ 2(목) 사시예불 9시 30분
2/ 3(금) 사시예불 9시 30분
화엄경 10시 30분
2/ 4(토) 입춘기도 10시 30분
2/ 5(일) 사시예불 9시 30분
고문진보 10시 30분
2/ 6(월) 사시예불 9시 30분
2/ 7(화) 사시예불 9시 30분
2/ 8(수) 사시예불 9시 30분
육조단경 10시 30분

2/09(목) 사시예불 9시 30분
2/10(금) 사시예불 9시 30분
화엄경 10시 30분
2/11(토) 정월대보름기도 10시 30분
동안거 해제
2/12(일) 사시예불 9시 30분
고문진보 10시 30분
2/13(월) 사시예불 9시 30분
2/14(화) 신년천도재 입재 10시 30분
지장재일
2/15(수) 신년천도재 2일 10시 30분
2/16(목) 신년천도재 3일 10시 30분
2/17(금) 신년천도재 4일 10시 30분
2/18(토) 신년천도재 5일 10시 30분
2/19(일) 신년천도재 6일 10시 30분
2/20(월) 신년천도재 회향 10시 30분
2/21(화) 사시예불 9시 30분
2/22(수) 사시예불 9시 30분
능엄경 10시 30분
2/23(목) 사시예불 9시 30분
2/24(금) 사시예불 9시 30분
화엄경 10시 30분
2/25(토) 사시예불 9시 30분
청소년집중참선개강 16시
2/26(일) 사시예불 9시 30분
초하루기도
고문진보 10시 30분
2/27(월) 사시예불 9시 30분
30기기초참선개강 14시 30분

2/28(화) 사시예불 9시 30분

헤거스님 강의 TAPE

금강경(육조주석).....35개
금강경(종경주석).....30개
금강경(야보송).....38개
육조단경.....46개
원각경.....33개
유식 30송.....32개
일체유심조.....36개
선요.....33개
승만경.....24개
한산시.....16개
법화경약의.....5개
사성제품.....6개
초발심자경문.....11개
태고보우선어록.....15개
능엄경 55위.....12개
반야심경.....47개
아마천궁계찬품.....7개
신심명.....8개
심우도.....5개
참나(좌선의).....8개
선가귀감(2013).....25개
서문.....26개
천수경.....12개
대승기신론.....40개
한비자(헤거스님).....26개

헤거스님 강의 CD

금강경(육조주석).....35장
금강경(종경주석).....30장
금강경(야보송).....38장
육조단경.....46장
원각경.....33장
유식30송.....32장
일체유심조.....36장
선요.....33장
천수경.....12장
능엄경 55위.....12장
반야심경(달마해설).....15장
반야심경.....4장
신심명.....4장
태고어록.....12장
법성계.....5장
서문.....26장
맹자 진심장(박완식교수).....45장
영가집 특강 (영가 현각선사의 문집)...15장
대승기신론.....40장
도덕경.....47장
맹자 진심장(헤거스님).....26장
한비자(헤거스님).....26장
New 능엄경요품.....19장

문의 : 교무팀 02-445-8484

계좌 :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보시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보시내용

보시금 | 강복선등, 서예반, 일원선등, 김홍은, 신동훈, 오승연, 오현정, 양정일, 양정이, 최선희, 홍광표, 무주상, 권희순, 안형기, 최선우, 천화당한의원
보시물 | 손지영, 동명한의원, 박인숙, 장기팔, 김미옥
대중공양 | 33기 불교대, 김웅기, 이채은, 대법화
대중떡공양 | 주정희, 손병모, 유제승, 유월금, 조연희
신문보시금 | 이진우
달력보시금 | 서옥순, 박미자, 최옥부, 자심문, 박구준, 송파선등, 대치2선등, 박만우, 대지행, 정명심, 이영순, 진도화, 김종수, 강복선등, 대치1선등, 이영순, 오춘근, 정순천, 박기돈, 배다은, 배민선, 남광희, 용인수지선등, 정성룡, 이복련, 윤광하, 김송구, 자재련, 정지운, 임태순, 관묘행

대방광불화엄경 석경불사

신한은행 100-029-930686 예금주 금강선원
문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 445-8484

화엄경 설 판 동 참

1-1806~1815 남주혜
1-1824~1833 김남철
1-1834~1843 고근영
1-1846~1855 이지민
이리나
1-1856~1864 이석원
1-1870~1879 유민식

구 좌 동 참
1-1801 김소정
1-1802 용수선등
1-1803 재재회(정수조)
1-1804 김정숙
1-1805 김병원
1-1816 이문열
1-1817 박진우
1-1818 김경준
1-1819 김동윤

1-1823 34기불대
1-1844 정미란
1-1845 이서현
1-1865 박윤찬
1-1866 신지현
1-1868 김동현
1-1869 이정우
1-1880 이영희

화엄경 영가 구좌동참
1-1820 강릉함씨 일체영가

1-1821 김해허씨 일체영가
1-1822 현복희 영가
화엄경 영가 구좌동참
영구 위패 동참자
송주식 영가
김형식 영가
김동윤 영가
왕복인 영가
심원극 영가
손귀인 영가

장한석 영가
현복희 영가
강달식 영가
임병례 영가
박길주 영가



대방광불화엄경 석경불사

불교역경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탄허대종사의 유지를 계승하고 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화엄경의
큰 뜻을 널리 펼치고자 시작되는 성스러운 대방광불화엄경 불사에 많이
동참하시어 큰 공덕 지으시길 바랍니다.

❖ 대방광불화엄경 經 제목 (각 1자) : 1천만원
❖ 글자 100자 (10구좌) : 1천만원
❖ 글자 10자 (1구좌) : 108만원

❖ 동참계좌 : 신한은행 100-029-930686 금강선원
❖ 문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445-8484)

2017년 3월 금강선원 참선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제30기 기초참선반 모집

참선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본 자세에서부터 참선의 이론, 실참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 개 강 : 2017년 2월 27일(월) ~ 5월 29일(월) 총 3개월 과정
-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 교육내용 : 참선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참
- ▣ 수 강 비 : 20만원(문의 02-445-8484)

제5기 금강참선지도자과정 연수생 모집

본 선원은 한국명상지도자협회에서 주관하는 명상전문지도사 자격 수여 단체기관입니다. 본 지도자 과정에서는 이론과 실참을 통하여 참선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충분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과 정 : 2급, 1급, 전문, 지도자 등 총 4과정
- ▣ 교육기간 : 2017년 3월 3일 ~ 2018년 12월 28일(금) 2년 과정
- ▣ 시 간 :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 ▣ 신청자격 : 금강선원 기초참선 수료자, 명상아카데미 기초·심화과정 수료자
- ▣ 지도법사 : 혜거 큰스님, 보조교사 : 대지행
- ▣ 참 가 비 : 각 과정 당 30만원(과정별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단 한 번에 제출할 경우 100만원)
- ▣ 신청기간 : 1월 25일 ~ 2월 28일
- ▣ 계좌번호 : 100-029-64234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 신청방법 : 금강선원 사무처 (02-445-8484), 이메일 ipc445@hanmail.net
- ▣ 연수신청서 다운받는 곳 : 금강선원 홈페이지, 금강참선지도자 카페 <http://cafe.daum.net/yml10>

제12기 청소년 기초참선

청소년들에게 지구력, 집중력, 자기조절력을 길러 청소년 시기에 길러야 할 바른 인성과 가치관 교육 및 학업 성취도를 높여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오후 6시
- ▣ 참여대상 :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 신 청 :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ipc445@hanmail.net)
- ▣ 참 가 비 : 1인당 20만원
- ▣ 계좌번호 : 신한 100-026-462524
- ▣ 문 의 : 금강선원 02-445-8484
- ▣ 회 비 : 20만원

❖ 학부모 설명회

- 일시 : 2월 4일(토) 오후 1시 30분
- 장소 : 금강선원 큰법당